


불새하는 불교실상신문 02) 745-8503
 01) 1286-2680
 서울 상봉구 상복동
 실상신문 041) 734-2680
 대진신문사 연인연 송정리

법어 초대 인환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우리 속엔 이미 부처님과 중생, 한마음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한마음 받은 것을 지금 쓰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번뇌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수법인 가운데 참선이야말로 가장 수승한 방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8·9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동국대 '전통사경' 강좌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이 '전통사경(傳統寫經)' 강좌를 마련하고 3월4일 개강한다. 사경의 개요와 역사에서부터 <금강경> <천수경> 사경에 이르기까지 1년 과정으로 마련된 '전통사경' 강좌는 대학에 사경 강좌가 처음 설치됐다는 점 외에도 사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사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고, 동산불교대학은 '나무아미타불'을 10만5천번 사경해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공주 정토선원이나 부산 법화정사 등 많은 사찰들이 정기적으로 사경법회를 열고 있으며, 종립 진선여중은 2년 전부터 교내 사경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사경법회를 여는 '이슈트라(www.esutra.org)'가 개설되는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사경도 활발하다.



신라 때는 한 자 쓰고 한 번 칠하는 '일자일배(一字一拜)'가 신앙의식으로 자리 잡았고 고려 때는 명종이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을 염원하기 위해 궁궐에 사경원을 설치하는 등 호국의 방편으로 사경이 행해지기도 했다.

최근 들어 사경이 불자들의 수행의 한 방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동국대 사회교육원의 사경강좌도 이런 흐름에 맞춰 마련된 것이다. 참선과 염불이 주류를 이뤘던 신형종토에 사경이 급속도로 부각되고 있다. 경전을 통해 불교 가르침의 본질을 알고자 하는 불자들의 욕구가 늘고 있고, 사찰이나 불교대학, 신형단체들이 사경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글자를 옮겨 쓰는 데 만족하거나 숫자를 채우는데 급급해서는 안된다.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은 "사경은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는 수행"이라고 강조하고 "그런만큼 글자는 반드시 정자로 써야하며, 고요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최소한 시작 전과 끝나고 나서 반드시 합장 삼배를 하는 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취재 1부 차장)



내원사 비구니스님들 국토순례 회향식

'천성산살리기'를 발원하며 1월 22일 부산의 광장을 출발한 양산 내원사 다섯 비구니스님들(왼쪽)이 25일간의 대장정 도보순례를 마치고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회향했다. '천성산살리기 국토순례 보고대회'를 가진 이날 회향식에는 조계종 총무원, 통도사, 조계사, 범어사 등에서 온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해 사찰수행환경을 파괴하는 각종 시안에 대해 연대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사찰환경보호기구 내달 발족

분쟁 관련 사찰·시민단체들 월내 합동회의 개최

최근 환경 분쟁을 겪고 있는 범어사, 화룡사, 내원사, 조계사, 미륵사 등 관련사찰들과 조계종 총무원이 사찰환경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불교 환경대책기구를 결성한다.

15일 서울역에서 열린 '천성산살리기 국토순례단' 회향법회에 참여한 조계종 총무원 및 범어사 화룡사 내원사 미륵사 조계사 해인사 통도사 신촌사 관계자들은 종단차원의 불교 환경공동대책기구를 3월중 발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 환경분쟁 중인 사찰과 시민환경운동단체 및 교구본사급 사찰들이 참석하는 환경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불교 공동대책기구는 △사찰 수행환경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법률적 장치 마련 △환경 문제 관련 토론회 개최와 환경정책 수립 △환경문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북한산금강산 천성산 미륵산 등에서 발생한 환경

현안은 물론 사찰 수행환경을 수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 불교 환경공동대책기구 발족은 개별 사찰이나 시민환경단체의 역량만으로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건설공사로부터 사찰환경을 지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됐다. 실제로 '북한산 관동도로 저지를 위한 시민중요연대'는 1월 31일 의정부 지원의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공사 '방해금지' 명령에 따라 지난 6

일 송추 농성장에서 철수했고, 금정산 범어사와 천성산 내원사의 고속철도 건설반대 운동도 실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통일 용화사의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 반대운동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담보상 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서울 조계사도 인근 고층빌딩 건축과 관련해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불교환경대책기구가 발족할 경우, 공동대책기구가 종단 내에

설치됨으로써 전국적인 단위에서 환경문제를 파악하고 공동 대응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차장은 "올해 예정된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에 환경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환경정책 마련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군포교활성화 심포지엄 군불교위 대전 수속사서

조계종 군포교위원회(위원장 성광스님)는 3월 1-2일 군법당 대전 수속사에서 '군포교 활성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창립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군포교위원회는 군포교 현실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장성급 및 영관급 장교가 대거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군불교 신도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포교방안을 마련하고, 주5일 근무 시행이후 군중활동 방향 등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jkim@buddhazoo.com

현대불교 지사모집

법률홍보의 주역으로 포교사업을 함께 전개할 참신하고 역량있는 현대불교신문 지사장우를 모집한다.

- 모집지역(8개 지역)
 - 강원북부: 춘천, 횡성, 양구, 화천, 홍천 일원
 - 강원남부: 원주, 정선, 영월, 평강 일원
 - 경기북부: 포천, 연천, 동두천, 파주 일원
 - 경기남부: 안산, 화성, 용인, 안성 일원
 - 충북: 충주, 청주, 제천, 음성, 진천, 괴산 일원
 - 충남: 대천 및 서산, 아산, 당진, 예산, 청양 일원
 - 경북: 영주, 문경, 상주 일원
 - 경남: 마산, 창원, 진주, 김해 일원
 - 전남: 순천, 여수 일원
 - 제주: 전역
- 포교사업 내용
 - 지역 내 독립 구독회장 광고수수 및 수이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활동 지원
- 제출서류 및 기한
 - 구비서류: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계획서, 추천서(스님, 단체장,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사진 2매)
 - 제출기한: 2002년 2월 29일(토)
 - 제출방법: 우편(22일 도착받지 않음) 또는 본사 방문 접수.
- 제출처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교과부
 - 직접전화: 02-737-0090 대표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북미경색 대화로 풀어야"

정대 스님 청와대 오찬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5일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마련한 각계연

로 초청 청와대 오찬에 참석, "대화를 통해 북미경색관계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서 정대스님은 "미국이 발언(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이 시민 입장에서 격정적이었다"며 "모처럼 조성된 남북 화해관계가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정공법으로 성의 있게 북미경색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미갈등'을 풀기위한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불심투혼 금·은매달 획득 15면

설연후로 이번호 16면 발행

지리산 천은사는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통과했을 뿐 사찰 내 큰 화재를 관망할 쫓이나 실제 관망 행위로 없었

관람료 반환 판결 불복
천은사, 대법원 상고

서울지법 민사합소 10부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천은사는 6일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단순도로 통과

자라도 경내도로를 이용한 것은 관람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관람자에 대한 정

의가 너무 증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종 "천은사 도로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관동도로라는 점을 간과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원우 기자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사찰 납골당

1. 사찰 납골당에 자신이 가족의 유해를 안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2. 있다면 그 이유는?
 ①극락왕생을 기원 ②제사 모시기가 편해서
 ③선산 등 마땅한 곳이 없어서 ④기타
3. 없다면 그 이유는?
 ①매장을 선호하므로 ②가족들의 반대
 ③사찰 납골당이 비싼 편이어서 ④기타

설문 참여: 2월 21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부정 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58호 9면에 실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 승가대학 방부 공고

유구(悠久)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 강원에서는 수많은 고승석덕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서 시대를 이끌어 갈 참 스님을 배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 편입생 방부를 받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모집학과
 · 치문과 : 00명 · 사집과 : 00명 · 사교과 : 00명
 (편입학, 사미과 수료증 및 전학증 지참)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2. 승적사본(총무원발급)
3. 주민등록초본
4. 건강진단서(종합병원발급)
5. 은사스님 추천서(각 2부)
6. 사진 4매(사미의재 대가사 복장)
7. 입학금(지각스님께 문의바람)

전형방법

- 서류접수기간 : 2002년 양력 2월 12일 ~ 4월 17일까지
- 서류심사 및 면접 : 서류접수 당일날

22기 영자교육 수료자

- 서류접수 : 2002년 양력 4월 11일 ~ 4월 22일까지
- 면 접 : 서류접수 당일날

■ 문의처 : 055) 384-2035 [지각스님, 원통방]
 055) 383-2363 [강원, 감로당]
 055) 382-7182 [종무소 교무국]

불기 2546년 2월 일

통도사 승가대학 주지 현문 강주 중산 혜남